

# '여수랑' 자전거 인기 좋은거 알랑가 몰라

여수시민 공영자전거인 '여수랑'이 관광목적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수의 색다른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랑은 지난 2011년 7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15만28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0여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한 셈이다.

'여수랑' 이용객 가운데에는 20~30대 학생 및 관광객이 65%를 차지해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들은 주로 대중교통을 대신해 근거리 관광과 여가활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여수시는 '여수랑' 역(station) 16개소, 자전거 2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여수랑'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오는 8월까지 확장동성산공원에 역 1개소, 자전거 20대를 추가



여수시, 공영자전거 16개 역 설치 200대 운영  
학생·관광객에 인기 ... 2년 새 15만여명 이용

설치하고 여서·문수지구, 신월지구, 웅천지구 등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과 연계한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운영하고 자전거 역 간 연계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영자전거는 무엇보다 유지관리와 시민안전 확보가 우선인 만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1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 총 1억6366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농촌체험마을 주민 교육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24일부터 주민 수요를 감안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다.

<나주시 제공>

# 장성에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아시아종묘'와 업무협약  
고부가가치 상품화 나서

장성군이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키 위해 국내 최고의 종자 회사와 손을 잡았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0일 이상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희걸 아시아종묘(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용작물 재배단지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빛원전 장학금 신청  
영광군, 8월 20일까지

영광군은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학생,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를 대상으로 2013년 한빛원전 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을 신청받자"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한빛원전 주변 지역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초·중·고,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해당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약용작물재배에 대한 공동연구개발로 농가에 우수종자를 보급하고,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장성군은 현재 37ha에서 101농가가 일당귀, 영경귀, 산마늘, 도라지, 잔대 등의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직거래 의존에 따른 판로의 불안정, 재래식 방법에 의존한 생산방식

으로 상품성 및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군은 일당귀 비가림 채종포를 운영하는 등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상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약용작물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생산·판매할 뿐만 아니라 채종까지 연계해 농가소득 향상 및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세 일 글

### "군민에 먼저 다가가는 경찰 되겠다"

안 병 감 고흥경찰서장



"군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고흥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먼저 다가가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맞춤형정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8일 취임한 제62대 안병감(54) 고흥경찰서장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부담식물 척결 ▲강·철도예방 및 검거활동을 통한 민생치안 확보 ▲화합하고 존중·배려하는 따듯

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서장은 목포가 고향으로 1986년 간부후보로 입문해 영암서장, 담양서장, 광주서부서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가족은 부인 박영경씨와 2남을 두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해남군, 버섯종균 자체생산한다

4억원 들여 시스템 갖춰

생산비 연 6억여원 절감

해남군이 버섯종균 자체생산에 들어간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10일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버섯 종균 및 톱밥 봉지배지 자체 생산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 버섯재배농가들이 외지에서 버섯종균과 톱밥 배지를 구입했으나 이를 자체 생산하면서 연간 6억2000만원의 종균값이 외지로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체 생산시스템을 통해 버섯종균의 경우 1병당 200원이 저렴한 1000원에, 톱밥배지의 경우도 900원이 저렴한 3500원에 관내농가에 공급하면서 농가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균 및 톱밥 봉지배지 생산시설은 해남군 옥천면에 건축면적 650㎡에 배양실, 작업실 등을 갖추고 고압살균기, 입병기, 탈병기, 액체종균 자동접종기 등 최신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 완공되면 시험가동을 거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지역 버섯농가들을 찾아 농민들로부터 버섯 종균 구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쳐 오는 2014년부터 연간 1만2천여병 버섯종균 및 새송이 병배지 120만병과 톱밥 봉지배지 15만개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버섯소비용이 변화에 따른 기능성버섯 재배확대를 위해서도 참송이, 버금송이, 목이버섯 톱밥 봉지배

지 재배시험 등을 병행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남 버섯농가는 모두 70여농가가 나타리, 새송이, 톱밥 봉지배지 표고버섯 등 5.5ha를 재배해 연간 5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강진청자축제 입장권 예매

26일까지 10만매 판매 목표

강진군이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리는 강진청자축제 입장권 예매에 들어갔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41회 강진청자축제' 입장권 예매를 축제 전날인 오는 26일까지 10만매 판매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입장권 가격은 1매당 5000원이며 강진군청 축제팀이나 온라인(<http://www.ticketlink.co.kr>)으로 예매하면 된다.

사전에 구입한 입장권은 축제 기간 전에는 관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입장권 취급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입장권으로 사용하고 5000원권 자유이용권으로 축제장 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장권 없이 축제장을 방문하면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청자축제 입장권 취급업 현황은 군청과 강진청자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3인3색 색깔이 살아있는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매주 월~금 밤 9시 4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